

새 천년 정보화 시대의 대학상



한 완 상
상지대 총장

21세기 정보화 시대, 대학교의 모습은 안팎으로 크게 달라질 것 같다. 모든 면에서 정보혁명이 산업혁명 보다 더 강력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본다면, 교육분야 역시 엄청난 변화가 예고 된다. 그 가운데 대학교육도 변화될 것이며, 특히 대학교의 구조와 기능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정보혁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류를 거리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있다. 거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거리에서 오는 온갖 불편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교통이 그 동안 꾸준하게 발달되어 왔지만, 거리는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런데 정보혁명은 원격적인 일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거리의 불편을 해소시키면서 직장의 의미를 새롭게 해줄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에 따라 대학 캠퍼스도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달라질까? 먼저 최초의 대학 모습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유럽과 미국에 최초로 세워진 대학들은 대체로 수도원적 모델(monastery model)을 따르고 있다. 직사각형 공간의 네모퉁이에는 교회 침탑과 같은 것이 높이 세워져 있고, 네모난 담벼락으로 대학공간은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 교수와 학생들의 일과는 수도승처럼 경건하고 엄숙한 제복을 입고, 질서 정연하게 짜여져 있다. 공부와 수도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공부, 연구, 수도는 한줄에 꿰어져 있는 셈이다. 이 곳에서는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도야도 함께 한다. 대체로 수도승처럼 속식을 함께 하면서 엄격한 규율생활, 금욕생활을 해야 한다.

유럽의 유명한 대학들을 보면 대체로 이 같은 수도원적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모습이 오늘에도 남아 있는데 대학 교정 중심에서 자리잡고 있는 사각형 공간(quadrangle)의 대학 안뜰이 바로 그것이다. 대체로 입학식과 졸업식 같은 큰 행사는 이 안뜰에서 이뤄지게 된다.

중세의 대학이 이러한 모습을 지녔다면, 산업혁명이 이루어 지면서는 대학의 기능도

확대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 안뜰을 중심으로 기숙사형 대학이 생겨났다. 수도원의 폐쇄적인 모습이 보다 자유로운 기숙사형 모델(residential model)로 바뀌어 지게 된 것이다. 기숙사 건물이 대학 캠퍼스 안에 들어서게 되고, 대학생활은 곧 기숙사생활로 이어지며, 곧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집을 떠나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이 같은 대학은 젊은 입학생들로 하여금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체험할 계기를 제공한다. 부모들도 대학생이 되는 자녀에 대해 독립적인 인격으로 대해 주고, 신경을 크게 쓰게 된다. 기숙사형 모델은 커다란 놀이 공간을 요청하기에 큰 운동장과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과 미국의 대학들이 이 같은 기숙사형 대학들이다.

산업혁명과 더불어 교통이 발달하게 되자, 대학은 통근형 모델(commuter model)로 변화하게 된다. 모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생기는 대학들은 통근형 모델을 선호하게 된다는 뜻이다. 즉,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기숙사형이라고 하기 보다는 통근형에 가깝다. 물론 이 두 가지 형태가 병존하는 것이 현실이긴 하다. 하지만 아직도 수도권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특수대학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체로 기숙사형과 통근형이 병행하는 것 같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이상의 세 가지 대학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 같으며, 위의 세 가지는 한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대학교 교정을 그 공간적 바탕으로 삼는 것이다. 대학의 삶은 곧 캠퍼스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지며, 특정 공간에 가야 비로소 대학생활을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캠퍼스 제약적 대학(campus bound university)의 모습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점차 약화될 것이다.

거리가 사라지게 되는 새로운 21세기에는 캠퍼스로부터 자유로운 대학(campus free university 또는 campusless university)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원격학습(distance learning)이 일상화 되기 때문이다. 정보혁명은 쌍방향통신을 일상화 시킬 것이다. 거리에서의 해방과 쌍방향통신의 일상화가 대학 교육 현실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캠퍼스라는 일정 공간도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지 모른다. 그것은 학습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배울 수도 있다. 날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이 같은 원격 학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캠퍼스에 상주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른바 교육수요자 중심의 대학 교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대학 캠퍼스라는 공간의 위력은 공급자중심의 요청이요, 현실이었다. 그러나 수요자중심의 교육으로 변화되어가면서 대학교정의 권위와 매력은 점차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 뇌리에는 일류 대학이라 하면 으레 화려하고 웅장한 캠퍼스를 가진 대학 또는 유서 깊은 건물과 분위기를 가진 고색창연한 캠퍼스라는 영상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것이 정보화 시대에는 새로운 이미지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것에 대한 대학 당국의 창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새 천년에 알맞은 대학상을 새롭게 가꿔나가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문명**